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 형 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아주대 석좌교수

작년 말에 파리에서 세드릭 빌라니 교수를 만났다. 빌라니 교수는 2010년 필즈상을 수상한 석학이며 앙리 푸앵카레 수학연구소장이다. 항상 나비넥타이 정장 차림에 자신만의 거미 브로치를 단다. 깊이 있는 수학 논문과 베스트셀러 대중서를 동시에 써 내며 학자의 스테레오 타입을 거부하는 이단아다.

그를 만난 곳은 실험 음악가 파드리스 물레리의 작업실이었다. 영화 매드맥스 세트장 같은 느낌의 커다란 지하 공간에서 이 음악가는 신개념 악기를 설계하고 만들어 연주하는 작업을 한다. 음악에 대한 학습이나 훈련 없이도 자기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이 작업실에서의 연주는 좋은 소리를 내

살바도르 달리의 12면 축구공

는 것보다는 멋진 그림을 그리는 것에 가깝다.

자폐증이나 신체적 부자유가 있는 아이들이 이런 악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경험을 하고 치료받는 현상이 관찰되는 바람에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됐다. 작업실을 방문한 사람 중에는 정신과 의사인 여성 인지과학자도 있었다. 음악가와 수학자 그리고 인지과학자가 무슨 공통의 관심을 가진 걸까.

시각적 정보를 음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자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까지 동원된 것이다. 자폐증 아이들이 지하실을 방문하는 것이 민망할 거라 생각한 빌라니 교수는 작업실의 지상 이전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럴 때는 필즈상 수상자라는 허명도 도움이 된다.

살바도르 달리는 초현실주의 화가다. 그의 1955년 대표작인 ‘최후의 만찬’에 나타나는 여러 직선들의 길이는 황금비를 이루고, 배경에는 큼지막한 정십이면체가 보인다. 똑같은 모양의 팬타곤 12개를 이어 붙여서 만든 각진 축구공이 예수님 뒤에 보이더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뜻인가. 예기는 고대 아테네 시절로 거슬러 올

라간다. 플라톤은 모순과 오류투성이의 현재 너머에 무결한 피안의 세계가 있다고 여겼다. 피안을 들여다보는 열쇠를 기하학에서 찾고는, “기하학은 진리로 가는 영혼을 이끌며 철학의 정신을 창조한다”고 가르쳤다.

아테네에서 제자들을 키우던 아카데미구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써 놓았다. 이 엄포에 주눅 들지 않은 용감한 사람들 덕에, 플라톤 아카데미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서도 계속되어 장장 900년 동안 존속했다.

그래서 ‘플라톤적’이라는 표현은 ‘이상주의적’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지적 사랑의 의미로 쓰이는 ‘플라토닉 러브’가 한 예다. ‘플라톤적 입체’(Platonic Solids)도 비슷한데, 흔탁한 이 세상에 숨어 있는 고귀한 입체 다섯 개를 이르는 말이다.

각 면이 정삼각형인 피라미드를 연상해 보라. 바닥까지 쳐서 총 4개의 면을 갖는 정사면체다. 다시 주시위를 연상해 보라. 각 면은 똑같은 정사각형이고 총 6개의 면을 갖는 정육면체다.

각 면이 똑같은 정다면체는, 놀랍게도 우주를 통틀어서 이 두 개 외에,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밖에 없다.

기 고

상무금융시장 이전, 주민 손으로 풀었다



임 우 진
광주 서구청장

1년 가까이 계속돼 온 상무금융시장(이하 금융시장) 이전 문제가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금융시장 폐쇄, 이전을 놓고 1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 온 주민과 시장 상인, 그리고 구청 간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매스컴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금융시장이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경 금융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폐쇄 요구와 노점 상인들의 존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부터다. 20여 년 전 버룩시장 형태로 출발하며 상무지구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해 온 금융시장이 주민들로부터 폐쇄 요구에 부딪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96년 상무지구 택지조성 당시 아파트 인근에는 시장이나 마트와 같은 부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종교칼럼



양 홍
서광교회 협동목사

2016년은 우리 가정에 더없는 기쁨과 행복한 해가 된 것 같구나. 그렇게도 목사 되기를 거부하던 네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고시까지 합격하여, 올 가을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세상 앞에 서게 되니 큰 영광이구나. 그간 고생 많았다. 내가 57년 동안 성직자로 재임하면서 목사로서 분명한 의식과 소신이 있던 것으로 알고 목회를 했었다. 그러나 지금 정병퇴임을 하고 돌아켜 보니 목사로서 성직이 과락이었음을 깨닫고 가슴 치는 노후를 보내고 있구나.

그러므로 아들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회 세상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성직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서신에 아버지의 진심을 담아 보내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직거래장터가 하나, 둘 생겨났고 오고 가는 주민들의 이용도 점차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산의 변화만큼이나 상무지구 모습도 바뀌게 마련이다. 하루하루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상무지구는 40여 개의 공공·금융기관이 들어선 행정·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고, ‘광주의 명동’으로 불릴 만큼 최대 상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금융시장은 그렇지 못했다. 금융일반 되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이 각지에서 모여들었고, 기업형 노점까지 가세해 도로와 인도를 점거했다. 도로를 점령한 물건들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로 막기 일쑤였으며, 장애인이나 노인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특히, 1차선을 점거한 노점 차들로 인해 출·퇴근길 주민들은 차량 제동으로 출거운 금융일을 스트레스로 시작해야 했다. 길 길 막힌 시내버스는 1차선에 정차할 수밖에 없었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아슬아슬 아슬아슬 곡에 운전을 해야만 했다.

이뿐만 아니었다. 노점 차량에 LPG 가스와 조리 기구를 설치해 놓고 음식물을 판매하다 보니 화재나 폭발 등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음식물쓰레기와 오배수로 인한 악취는 여름이면 극에 달했고, 원산지 표시 없는 농수산물에 대한 대책은 미

보책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상무지구 역시 휴·폐업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세금 환분 내지 않고 호황을 누리는 금융시장 상인들에 대한 상가 주민들의 시선 또한 고을 리가 만무했다.

이처럼 20년 전과 지금의 상무지구 모습, 그리고 현재 금융시장이 들어선 지역의 여건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융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특히, 치평동 주민들은 금융시장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단체 대표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시장 폐쇄 요구 진정서까지 접수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장 상인들은 생존권 보호로 맞섰다.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주장에 주민들은 시장 폐쇄의 불가피성만 언급하여 주민들의 생존권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구청의 시장 이전 중재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전 문제를 두고서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주민 대표, 금융시장 대표, 구청 담당자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구성되어 14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됐다.

금융시장 이전 합의에 이르기까지에는 누구보다 치평동 주민들의 힘이 컸다. 주민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폐쇄가 심각한 금융시장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금융

이 사실은 수학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고, 신비한 다섯 개의 입체는 플라톤 학파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플라톤의 4원소론에서는 우주를 이루는 기본 원소인 불·흙·공기·물이 각각 4개의 정다면체에 해당한다. 여기 정십이면체가 빠졌는데, 후대 사람들은 이를 미지의 제 5원소로 불렀다. 플라톤은 신이 우주의 별자리를 배치하는 데 정십이면체를 사용했을 거라 했고,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에테라라고 불렀다.

살바도르 달리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함께 하는 마지막 만찬의 성스러움을 신의 섭리를 상징하는 제5원소로 표현했고, 황금비를 도처에 배치해서 미적 완결성을 담아내려 한 것이다. 이런 실험 정신으로 가득한 예술가는 도처에 출몰한다. 칸딘스키와 초기 피카소의 작품에서도 구조와 명징성의 연계와 실험이 확연히 보인다. 드뷔시는 낮낮이가 황금비를 이루는 음들을 배치하는 작곡 실험을 했다.

수학은 종종등 교육체계에서 합리적 생각의 능력을 연습시키는 도구이다. 또한 각기 다른 분야를 넘나드는 음악가의 치유 실험과 미술가의 상징 실험에 영감을 주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때로는 생업마저도 뒤로 한 채 상상방안을 모색해 왔다.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여 계도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금융시장의 폐해를 알리고, 노점 상품 불매운동도 펼쳤다. 또한, 상인들의 생존권을 감안하여 애초 시장 폐쇄 입장에서 시장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통 큰 양보를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주도한 주민 대표들은 금융시장 상인들을 끈기있게 설득, 막판 합의를 이끌어냈다. ‘내가 사는 동네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자치의식이 없었다면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참다운 동네자치’요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21년째가 된다.

오랜 세월에도 관(官) 주도의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은 성숙하지 못했었고, 결국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치평동 주민들은‘내가 동네의 주인’이라는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현안을 의제화하고 공동의 문제로 적극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해 냈다. 주민들 손으로 동네자치를 일구어낸 것이다. 지방자치는 곧 생활자치이며, 생활자치는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때 비로소 그 꽃을 피우게 된다. 이를 치평동 주민들이 증명해 냈다.

‘그의 종’이다.

아들! 지(地), 정(情), 의(意)의 셋에다 믿음을 더해야 한다. 지 없는 믿음은 맹목이기 쉽고 정 없는 믿음은 좌절하기 쉽다. 그러나 믿을 있는 자는 창조력을 믿을 있는 것은 향기를 믿을 있는 이는 불굴의 투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아들아 목사는 더 깊은 성경 연구,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사람, 더 깊은 봉사, 더 깊은 선교 전략 없이 하등자로 대지 말아라. 큰 교회를 선호하지 말고 그러면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하고 고백하며 주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맡기는 거야, 그리고 깊은 사명의 바다에 그물을 치는 거다. 수많은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은혜의 바다에 배를 띄우는 승리자가 되기를 염원하라.

아들아, 마지막으로 목사는 속인이 성직을 맡는 것이지 않나? 그러므로 그 안에 속(俗)과 성(聖)이 동거하는 지,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거룩을 탐하고 지극히 육적이면서도 영적이고 지극히 시간적이면서도 영원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내면적 갈등을 일으키지만 조화를 이루려는 적은 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승리하는 목회자 되기를 축수기도 하라.

社 說

20대 첫 정기국회 개최 정정보다는 민생을

어제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정부 예산안 심의와 각종 법안을 처리할 정기국회는 당초 여소야대 상황 속에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조전’ 성격마저 띠고 있어 힘로가 예고됐다. 그리고 예상은 비껴 나가지 않았다.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놓고 파열음이 일었다. 정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사태와 사드 배치 논란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벽두부터 대립각이 형성된 것이다.

올 정기국회는 예산안 심사라는 기본 일정 외에 조선업계 침체로 수렁에 빠진 국가경제 위기의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경제 구조조정과 각종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펴 달라는 주문도 빚발쳤다. 하지만 기대와는 동떨어진 ‘정쟁’으로 첫걸음을 떼고 말았다.

막 오른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 기원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 축제인 ‘2016광주비엔날레’(9월2일~11월6일)가 오늘 개막됐다. ‘제8 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모두 37개국에서 120명의 작가들이 참여, 인류 미래를 고민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이 온통 현대미술 축제장으로 변모한다. 담양 대담미술관, 해남 행촌미술관 등 사립 갤러리와 문화예술 기관 10곳에서 특별전이 열리는 것이다. 2016광주비엔날레 시민 참여 프로그램 ‘나도 아티스트 : Healing Heart(힐링하트)’는 지역과 소통하는 미술 축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하지만 비엔날레가 성공적인 행사가 되려면 출품작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함을 말할 것도 없고 관람객 규모 또한 중요하다. 지난 2012년 22만8400명에서 2014년 18만 명으로 줄어드는 추세

물론 이번 정기국회 특성상 여야의 대치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도 사실이다. 지난 4·13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이 정권교체를 의식해 개혁 법안 추진과 선심성 예산 편성 견제로 정부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점쳐졌다. 여기에 여권 또한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태세여서 회기 내내 진통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여야는 민생 살리기 입법과 관련 예산 배정은 당리당락과 구분해 최대한 관철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여야가 정치 싸움에 치중해 가장 무능했다는 19대 식물국회의 전철을 되밟는다면 국민 고통 가중과 국력 쇠퇴는 불 보듯 하다. 민생을 뒤로하고 정쟁만 일삼는 정파는 다음 대선에서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지역의 굵직한 사업비를 국회 심사 단계에서 살려 내야만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 점이 우려스럽지만 올해는 치밀한 홍보와 차별화한 마케팅으로 흥행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 비엔날레는 박양우 대표이사 체제 출범 후 치르는 첫 행사인 만큼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치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재단은 지난 2014년 비엔날레 혁신위원회에서 선결 과제로 꼽은 ‘재단 조직 체계 및 운영의 효율화’, ‘비엔날레와 지역 시민사회와의 관계정립’ ‘광주비엔날레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시민 참여는 광주 비엔날레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시민들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미술 축제가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각종 행사에 폭넓게 참여하고 이를 향유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광주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국제 비엔날레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無 等 鼓

다고 한다. 손가락이 세 개로 골갈귀가 달려 있는 이 것파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캐릭터다.

일본 닌텐도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GO’에 나오는 요괴나 요즘 인기인 ‘가시수’, ‘진적의 거인’, ‘센과 치하로의 행방불명’ 등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거의가 일본 옛 기담의 괴물이 변형된 형태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일본의 요괴나 괴물이 전 세계를 홍보

부를 버리고 도망쳐 왔다고 한다.”

요괴 사랑

일본 괴담에서 전

해 내려오는 요괴 ‘로쿠로쿠비’ 이야기다. 목이 몇 미터씩 늘어나는 괴물인 이 요괴는 낮에는 보통 인간과 똑같지만 밤에 자고 있을 때만 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로쿠로쿠비인 줄은 모른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목과 몸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괴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일본에는 로쿠로쿠비처럼 ‘독창적인’ 요괴 또는 괴물이 적지 않다. 강이 바다에 살며 바가지 머리에 어린아이 모습을 한 ‘것파’도 일본만의 고유한 요괴다. 정수리에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그곳에 고인 물이 없어도 죽는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